

2014 Vol. 1

창간호

한도인

Handong IN
Magazine





한동인 Magazine

창간호

‘한동인’은 한동 안에서의 많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In’과 한동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간다는 ‘人’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동인 Magazine은 연 2회 발행되며 한동인 Newsletter는 학기 중 매월 발행됩니다.

*후원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한동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기존에 발행되던 ‘갈대상자’ 소식지를 2014년부터 ‘한동인 Magazine’으로 통합하여 발행합니다.

발행처 (학)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기획 후원팀, 대외협력팀
 글 학생기자(성연태, 이영건, 임동진, 김은혜, 구요섭, 이해정)
 사진 이완, 학생기자(장형규, 이영건, 김진경)
 디자인 디자인 인사이트

CONTENTS

Special Theme 새로운 시작	신임 총장으로 취임한 장순홍 총장	2	Community	총장 동정	44
	2014년부터 레지덴셜 칼리지 전면 실시	6		교직원 소식	44
				동문 소식	46
People	농림부장관상 수상한 Holzapfel 교수	10	한동툰	아너코드	47
	변화 그리고 열정을 실천하고 있는 김공웅 교수	13			
	‘항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동문	16	갈대상자	한일장학금, 우리가 몰랐던 소중한 이야기	48
	‘티치포올코리아’ 최유강 대표	20		재학생 347명의 아름다운 기부 ‘한동천사’	50
Inside	2014 김윤규 교수 팀, 서당골 콘서트	23	후원안내	51	
	문화선교사역을 위한 동아리 연합 ‘Mission aNd Talent’	26	신규 기부자 명단	53	
	클래식과 재즈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한동오케스트라	28			
News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캠퍼스를 위한 스마트캠퍼스	30			
	한동 20주년 기념 숲 프로젝트	32			
	주한피지대사 한동대 방문	34			
	총동문회가 전하는 따뜻한 후배 사랑 ‘선미커피’	35			
	제7회 사랑의 마라톤 ‘BE THE PACEMAKER’	36			
	단신모음	39			

새로운 총장, 새로운 시작!

한동대학교 신입 총장으로 취임한 장순홍 총장을 만나다

지난 2월 4일, 19년 동안 한동대학교를 섬기던 김영길 총장에 이어 장순홍 총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그는 인성과 영성으로 삶의 열매 맺는 한동인, 달란트(재능)를 발휘하는 한동인,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총장이 된 지 4달여가 돼가는 5월 29일 아침, 한동대학교 총장실에서 장순홍 총장을 만났다.



“총장으로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
지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도전

장순홍 총장에게 한동대학교 생활은 새로운 삶의 도전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서 30년 넘게 학자로서 살아왔지만, 한동대학교는 한동대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학교이기 때문이다. 지난 4달 동안 새로운 지역,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과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생활하며 지냈다. 특히 그가 총장으로 부임한 후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지역과의 협력이었다.

“총장으로 한동대학교에 오기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 지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프로젝트가 지역과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정부의 지원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대학이 실력을 발휘하는 무대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는 지역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개선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다 말했다.

“사실 저는 지역과의 관계 개선을 2년 정도로 생각하고 한동대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100일 남짓한 시간에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성취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낸 것처럼 말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오기까지

장 총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귀국한 1982년부터는 32년동안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원자력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에 원자력공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원자력학회에서 학술상을 받았다. 또한 아랍에미리트(UAE) 칼리파 과학기술연구대학과 인력 교류

및 교육 협력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공헌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 총장은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의 날(2014.4.21)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았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때 창조과학회에 속한 과학자라고 저를 보고 사이버 과학자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장을 통해 저의 과학적 업적이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총장과 한동대학교의 인연은 갈대상자를 통해 시작되었다. 한동대학교가 설립될 당시에는 카이스트에서 같이 지내던 김영길 총장이 총장으로 부임한다고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1996년쯤 한동대학교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갈대상자 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는 갈대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재무적인 도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갈대상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동대학교는 정부나 특정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갈대상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저와 한동대학교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한 인연을 이어오며 한동대학교 이사과 이사장을 지내던 장 총장은 기독교와 한국 대학의 위기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리더십이 바뀌는 한동대학교가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해 한동대학교 총장이 되기로 결심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줄고 대한민국 기독교 청년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되는 현 상황에서 한동대학교가 예전 같대상자를 만들 때만큼 새로운 고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총장이 20년 만에 바뀌는데 이는 4년마다 바뀌는 다른 대학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총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해 총장직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장 총장은 3대 비전을 통해서 영성, 인성과 학문적 탁월성을 가진 학생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1세기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인재는 ‘창의력’과 ‘다양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라며, 이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비전이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1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연구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를 발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한동대학교의 3대 비전

1. 인성과 영성의 융합으로 삶의 열매 맺는 한동인 | Handong People Who Bear Fruits through Combining Upright Character and Spirituality
2. 재능 발전과 발휘의 장 | Handong Campus Developing & Giving Talents for Others
3.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 10 World Changing Projects
 - 지역발전 프로젝트 |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 통일한국 프로젝트 | United Korea Project
 - 아프리카 프로젝트 | Africa Project
 -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 Entrepreneurship Project
 - 스마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 Smart Financing Project
 - 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 | Next Generation ICT Project
 - 차세대 자동차 및 로봇 프로젝트 | Next Generation Car and Robot Project
 - 지속가능한 에너지·환경 프로젝트 | Sustainable Energy-Environment Project
 - 차세대 의식주 프로젝트 | Next Generation Life Project
 - 건강·복지 프로젝트 | Health-Welfare Project

“저는 10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핵심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한 현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결국 자연계와 인문계같이 거리가 먼 것이 융합될 때 확실히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 안철수 교수가 창의력이 있잖아요. 의사였고 경영학도 전공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전공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공만으로 가는 것은 편하지만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죠. 도전하는 정신이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많은 수의 교양과목을 Pass/ Fail 과목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먼저 한동대학교가 우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 사회에 공헌한다면 한동대학교의 더 큰 지원과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한동대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여러 과목을 들으면 부담이 되고 졸업도 느려진다고 생각해요. 인문계 학생이 이공계 수업을 듣고 싶어도 성적 문제 때문에 수업을 안 듣거나, 들어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Pass/ Fail 과목 비중을 높여 1학년 때 부담을 줄이면서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는 오히려 대학 교육의 본질을 일깨우는 가치에 대해 말했다.

“인생은 Give&Take 입니다(웃음). 내가 먼저 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죠. 먼저 한동대학교가 우수한 학문을 연구하고, 뛰어난 인재를 배출해 사회에 공헌한다면 일부러 바라지 않더라도 한동대학교의 더 큰 지원과 발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창조의 출발점은 바로 이웃사랑

마지막으로 장 총장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이웃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창의력은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기자신의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주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자신을 비우고 이웃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그런 대단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눠보니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전기가 필요하다. 그럼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원자력을 생각하고 저를 만난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려고 대안을 찾는 데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0대 프로젝트

1.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글로벌리제이션-Glocalization) 속에서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
2. 통일 한국을 대비해 준비해야 할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는 통일한국 프로젝트
3.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을 돕고 개발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4. 제2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 활성화 프로젝트
5. 제2의 UAE 두바이의 기적을 꿈꾸는 스마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6. 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 프로젝트
7. 차세대 자동차 및 로봇 프로젝트
8. 미래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시스템에 대해 연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환경 프로젝트
9. 차세대 의식주 프로젝트
10. 건강·복지 프로젝트



Special Theme

한동대, 2014년부터 레지덴셜 칼리지 전면 실시

개교 초기부터 생활관 문화 정착... 2014년부터 6개 RC로 확대

한동대학교는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이하 RC)를 2014년 1학기부터 기숙사 전 호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RC는 한동대의 교육지침인 인성, 영성, 지성교육의 통합적인 실행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추진을 위해 학생생활관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기숙사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에 토레이 칼리지(Torrey College)를 시작으로, 2013년 장기려 칼리지, 카마이클 칼리지(Carmichael College), 카이퍼 칼리지(Kuyper College)를 추가 신설했으며, 2014년부터 기존의 로템관과 벨엘관을 새로이 각각 열송학사 칼리지, 손양원 칼리지로 개편함에 따라 총 6개 RC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RC제도의 도입이 한동대에선 아주 낮은 일은 아니다. 한동대는 개교 때부터 1명의 교수와 35~4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을 기반으로 공동체 리더십교육을 진행하고 생활관 문화를 정착시켜왔다. 생활관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전인격적 교육의 연장으로 보아, 매 학기 약 3,200명의 학생들이 현재 총 9개 생활관에서 거주해 왔다.

RC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팀, 생활관, 교목실이 상호연계하여 인성, 리더십, 영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과 과정에도 접목할 예정이다. 기존 자치회와 동·층장단이 중심이 되었던 학생회가 개편되어 각 RC 별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고유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주관한다. 각 RC의 학생은 사회봉사, 워크듀티 등 다양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각 RC만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다.

RC 전면 실시



1. Torrey College/토레이 칼리지

2011년에 시작한 한동대 최초의 Residential College로, 한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고대천덕(Archer Torrey III) 성공회 신부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고자 Torrey College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핵심가치 "Living and Learning Together"라는 표어를 갖고 일치(integrity), 관계(relationship), 공동체(community), 자치(self-governance)의 핵심가치 추구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비전관	김성욱(GLS)	4인 1실	17개팀	2011년 1학기



2. 장기려 College/장기려 칼리지

장기려 College는 생활관인 은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Residential College이다. 생전 '살아있는 성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성산 장기려 선생을 본받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고 있다.

핵심가치 : 섬김과 나눔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은혜관	서병선(생명과학)	4인 1실	18개팀	2013년 1학기



3. Kuyper College/카이퍼 칼리지

Kuyper College는 2013년 창조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RC이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인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치도 없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뜻을 이어 받아 성경의 진리를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추구하고 있다.

핵심가치: Lordship(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창조관	용환기(전산전자)	2인 1실	12개팀	2013년 1학기



4. Carmichael College/카마이클 칼리지

Amy Wilson Carmichael(1867-1951) was a missionary in India, who opened an orphanage and founded Dohnavur Fellowship(도나버 신앙공동체). She served in India for 55 years without furlough and wrote many books about the missionary work there. She lived and exemplary life of devotion to Christ and service to the least of these in India.

핵심가치: 봉사과 헌신의 삶을 배우는 공동체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국제관	Cordell Schulten (국제법률대학원,법)	4인 1실	11개팀	2013년 1학기

5. 손양원 College/손양원 칼리지

손양원 칼리지는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한 용서와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핵심가치: 진리 안에서 자유함, 사랑의 실천, 용서와 화합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벤엘관	도명술(생명과학)	4인 1실	22개팀	2014년 1학기



6. 悅松學舍 College/열송학사 칼리지/Philadelphos College

‘열송’이란 ‘송무백열(松茂柏悅)’의 줄임말로써,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이다. 즉 같이 공부하면서 자라는 가운데, 자신보다 옆에 있는 벗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대표적인 상록수로서 겨울이 되어도 푸른빛을 잃지 않아 예부터 선비의 깨끗한 지조와 기상의 상징이었고, 또 서로 비슷하게 생겨 가까운 벗을 일컫기도 한다. 벗이 잘되는 것을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 관계의 시작이자 사람됨의 근본 도리이며, 특히 같이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관이다. 또한 그것은 대단히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이기도 하다.

핵심가치: 진리, 자유, Holiness(요한복음 8:31-32)

RC관	Headmaster	사용인원	2014년 팀수	RC 설립연도
로렘관	강사웅(경영경제)	4인 1실	23개팀	2014년 1학기



[인터뷰]

열송학사 칼리지

한동대에는 아주 특별한 기숙사 문화가 있다. 학생들은 팀을 기반으로 한 생활관에서 다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배려의 덕목을 배우고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4년부터 기존 생활관이 총 6개의 RC(Residential College)로 개편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그 중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열송학사 칼리지의 회장단을 만나 한 학기 동안의 경험과 보람을 들어봤다.

Q. 열송학사 칼리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열송학사 칼리지는 로렘관에서 600여명의 학우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RC입니다. 열송학사 칼리지 학생회는 회장 1명과 RA(Residential Assistant) 6명으로 구성되어 로렘관에 거주하는 학우들을 위해 섬기고 있어요. 열송학사의 ‘열송’은 ‘송무백열(松茂柏悅)’의 줄임말로,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곁에 있는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RC의 류대영 교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른 소속 교수님들의 투표로 결정되었어요. 열송학사 칼리지는 총 23개 팀이 소속되어 있고, 생활관에서 가장 규모가 큰 RC예요.

Q. 열송학사 칼리지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희는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한 RC예요. 헤드마스터 교수님과 학생회가 처음 RC를 구상할



때부터 인문학을 강조하는 RC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학우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문학, 역사학, 철학을 공부하고, 생활에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RC를 구상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이번 학기에는 인문학 콘서트 3회, 김윤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문화답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 첫 학기를 보내고 난 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나요?

처음 RC를 시작했기 때문에 RC의 체계를 정착시키는 단계가 필요했어요. 먼저 학우들에게 우리가 인문학적인 테마를 갖고 RC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로렘관 1층에 자리한 코이노니아실의 이름 공모전을 실시했고, 송백계(松柏梯)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한편, 학생들이 RC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10만원 프로젝트로 코이노니아실을 꾸밀 수 있도록 하고, 새내기 섬김이 및 팀장 러브피스트와 열송학사 칼리지 풋살대회도 진행했죠.

아무래도 첫 학기이다 보니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예상보다 참여율이 높았던 점에 만족하고 있어요. 수업으로만 만나던 교수님을 기숙사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인생 지혜도 배울 수 있어서 학우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Q.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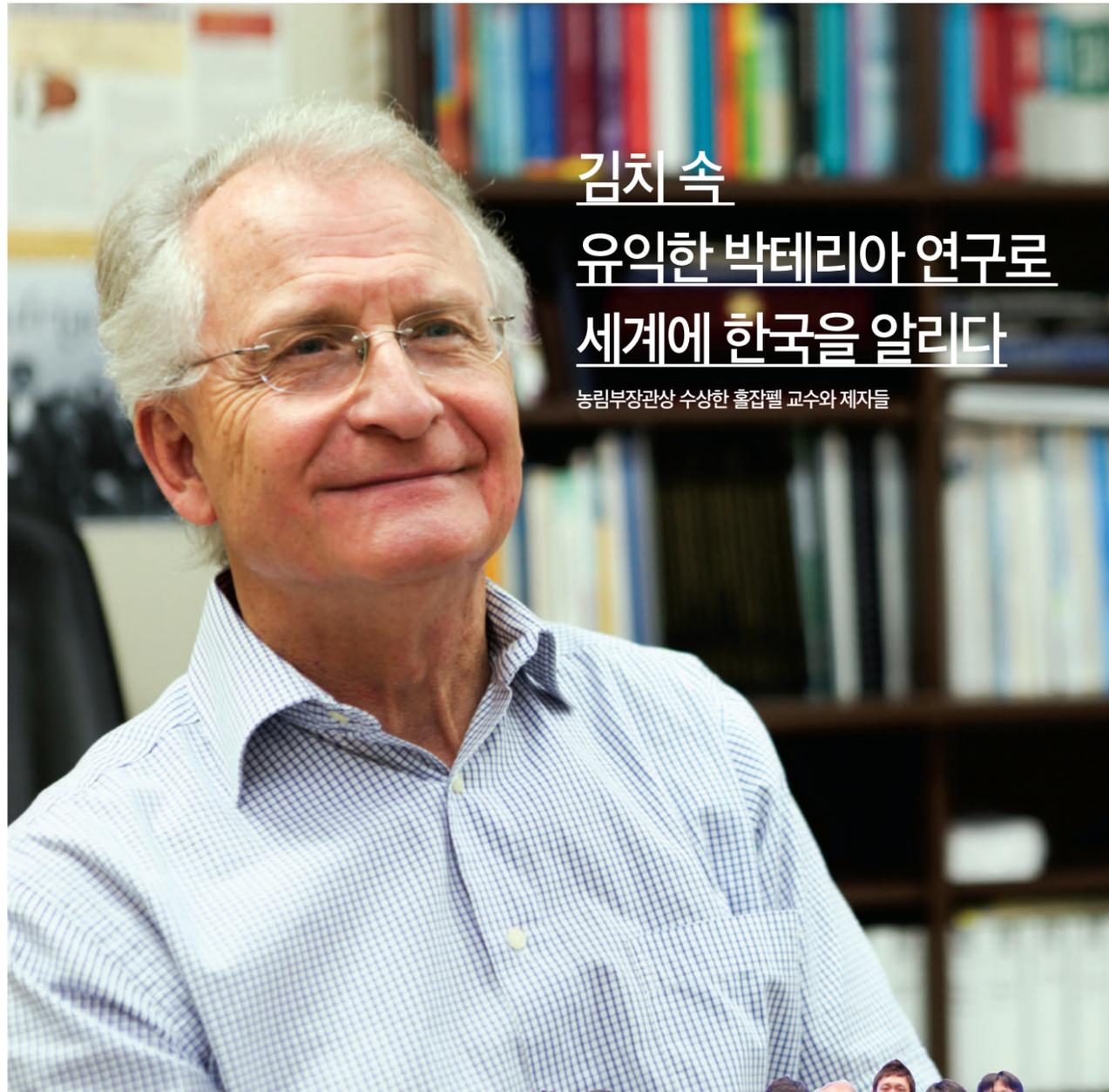
처음 시작한다는 부담감이 물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손양원, 열

송학사 칼리지가 동시에 RC로 전환되었는데, 시설차이 때문에 처음엔 학생들이 손양원 칼리지(벤엘관)로 물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 RC를 1지망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고, 시설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채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규모 면에서도 300~400명 정도인 다른 RC들 보다 훨씬 많은 학우들을 6명의 RA들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어렵게 느껴졌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처음에는 ‘땀 굽는 냄새가 나는 RC’를 그리면서, 언제나 친근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코이노니아실을 인문학 카페로 꾸며보려고 했어요. 학우들로부터 책을 기부받고 토스트기를 구비하려고 계획했는데, 생활관에서 전열기 사용이 어려워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뜻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계획했던 것들을 다 실현하지 못한 건 아쉬워요.

Q. 열송학사 칼리지에 앞으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요?

RC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열송’이라는 말의 뜻처럼 서로가 잘되는 모습을 다같이 기뻐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하고 다른 학우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한동로고송의 ‘아름다운 벽등 그 불빛은 아직 내 마음속에’라는 가사처럼 아름다운 벽등 아래서 꿈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생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



김치 속 유익한 박테리아 연구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다

농림부장관상 수상한 홀잡펠 교수와 제자들

최근 세계 5대 건강 음식으로 선정된 김치. 이러한 김치를 세계에 알리면서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연구팀이 있다. 한동대학교 홀잡펠(Holzzapfel) 교수와 대학원생 7명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피스에 방문할 당시 홀잡펠 교수는 원주에서 열린 창조과학회 컨퍼런스를 막 다녀온 직후였다. 피곤했을 법한데도 반갑게 맞아주며 웃음을 잃지 않는 그와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사제간의 끈끈한 관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홀잡펠 교수는 2007년 독일에서 한동대로 부임했다. 그는 독일에서 연구 기관의 책임자와 교수로 있었고 미생물학과 산업생물학 등 생물학 관련 수업을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독일에서 알고 지냈던 동기가 한동대의 생명과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1995년 한동대가 개교했을 때부터 한동대에 관한 소식을 항상 그에게 알려주었고, 학교를 위한 기도제목도 함께 나눴다. 그러던 중 그는 한동대학교에 부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당시에는 독일에 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결국 한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올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또 김영길 전 총장님과도 한동대학교가 개교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현재 홀잡펠 교수는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첨단그린에너지환경학과)과 생명과학부에 소속돼 있다. 특히 그는 김치를 발효시키는 박테리아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200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3년, 김치 박테리아 연구로 김치를 세계에 건강식품으로 알린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다. 김치 박테리아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김치가 세계 건강 음식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치 속 락트산 균은 사람의 건강에 대부분 좋습니다. 특히 김치나

요구르트, 치즈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깊게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락트산 균은 우리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미생물군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건강의 개선, 면역강화 등 계속해서 연구할만한 유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이들은 여러 난관을 넘어서야만 했다. 다른 연구팀에 비해 소규모의 그룹이었고, 정부 과제, 기업 과제, 연구비, 인건비 등을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기금을 얻어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어려웠고, 준비 과정에 고통스러움이 따랐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은 도전의 기회가 됐다. 결국, 연구 기금을 얻어냈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홀잡펠 교수와 팀원들은 문제를 풀어가며 얻는 성취감과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번 연구를 홀잡펠 교수와 함께 진행한 생명과학부 대학원생 박형진 씨는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씩 풀어가면서 성취감과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연구가 잘 진행되고 상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중간에 실패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께서도 끝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김치 박테리아 연구를 통해 홀잡펠 교수와 팀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eneficial microbes (ICOMB 2014)' 학회에도 참석했다. ICOMB은 세계 약 200여 개국이 모이는 학회로,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 연구를 발표하여 미래 연구를 촉진하는 학회



이다. 김치 박테리아를 주제로 이곳에 참석했던 생명과학부 대학원생 박현준 씨는 Poster Presentation Award 부문에서 2등 상을, 박소영 씨는 Oral presentation Award 부문에서 2등 상을 받았다.

끈끈한 팀워크 속에 연구가 진행되고 정부기관에서 상까지 받게 된 것은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 세계 학회에서도 이들의 연구가 뒤쳐져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며 자신감도 얻었다. 또, 많은 연구자와 만나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얻게 됐다. 김치 박테리아의 연구는 계속 될 예정이다.

홀잡펠 교수는 인터뷰 내내 김치 박테리아 연구와 결과가 온전히 대학원생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연구는 학생들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결과도 좋게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이런 그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자신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라는 것.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를 주

고 물질양면으로 지원하고 싶어 했다. 오피스에서 이뤄진 인터뷰 내내 홀잡펠 교수는 연구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팀'이라고 말하며 팀원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다. 제자들을 아끼며 과학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홀잡펠 교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비전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미래의 리더입니다. 제 열망은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인생 속에 절대적인 것이 없으나 성경의 진리에 기반을 둔다면 미래의 리더들에게 절대적 기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격려해서 이들이 단순히 좋은 학자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 믿음의 기반을 둔 학자들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김공웅 교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변화 그리고 열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공웅 교수

백발 머리에 빵모자. 예사롭지 않은 복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김공웅 교수의 첫인상이다. 70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열정과 젊음이 느껴진다. 지난 7월 1일 한동대 느헤미야홀 2층에서 김공웅 교수를 만나 그의 인생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변화, 그리고 시대 흐름의 순용

김 교수는 1980년대 우리나라 광고계의 획을 그은 인물이다. 당시 우리나라 사진술은 매우 열악해서 사진 촬영 후 인화했을 때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광고의 시각효과를 높이는 기술을 활용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1983년 현대자동차에서 '스텔라'라는 자동차를 출시할 당시, 김 교수는 자동차의 각 부분을 나누어 기능을 설명하는 일러스트를 최초로 그렸다.

"당시 Air Brush(공기 압력으로 물감을 분사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손으로 일러스트를 그렸습니다. 사진보다 더 현실적이고 화려하게 말이죠. 자동차 '스텔라' 일러스트 광고 이후에 많은 광고 일러스트 작업 요청이 들어왔고 부라보콘, 플라포, 홈런볼, 시모나, 캔디바, 팽귄표 통조림에 들어간 모든 일러스트 등 당시 유명했던 상품 광

고의 일러스트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 일러스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김 교수. 하지만 그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일러스트를 그리던 그에게 컴퓨터 보급으로 인한 각종 디자인 프로그램의 범람은 어찌 보면 위기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수작업 일러스트 작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과감히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고 다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90년대 초 아날로그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디지털로의 변화에 당황했고 저 또한 같은 세대로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었고 또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한동대학교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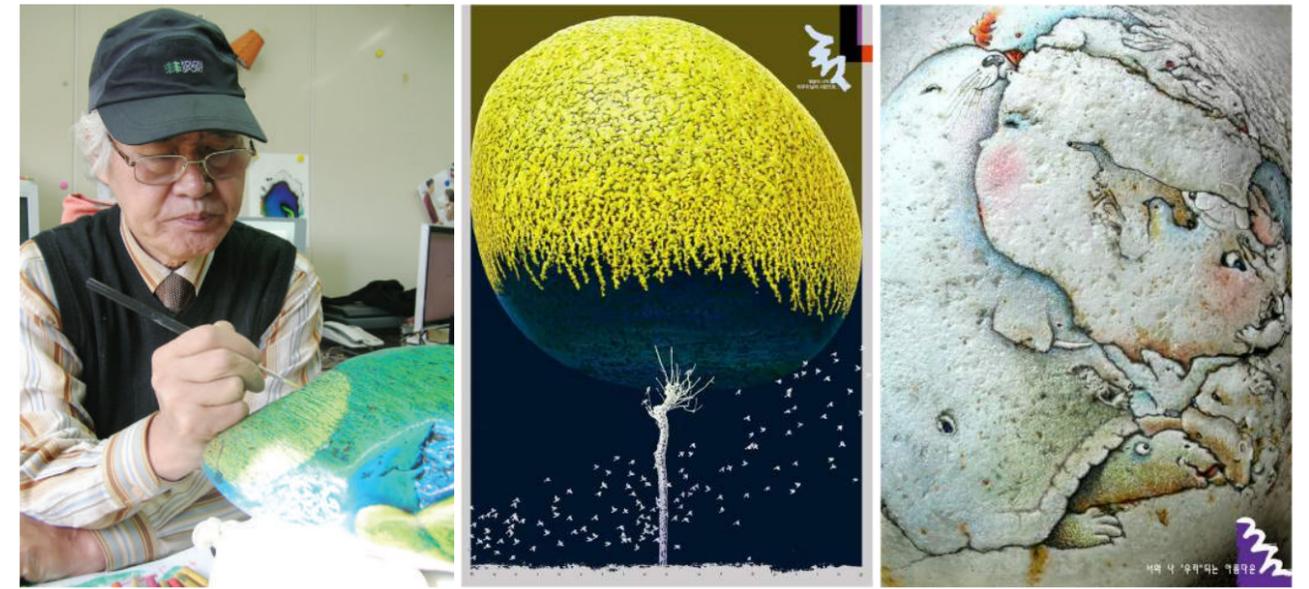
광고 일러스트의 전문가였던 그에게 많은 작업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했다. 넘쳐나는 작업 의뢰와 일 가운데서 그는 일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신경성혈압을 경험했다. 의사의 진단결과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의 건강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일은 밀려들어 왔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제대로 설 수 없었다.

“무리한 작업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주기는 점점 빨라졌고, 쉬지 않으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한동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던 기억이 났고 연락해서 강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포항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려면 5시간이 소요되므로 내심 버스에서 충분히 쉬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구요. 이것을 계기로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생각

해보니 한동대학교를 오면서부터는 혈압이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동대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대에 교수로 온 이후에도 그는 매일 새벽 3~4시까지 학생들의 작품을 피드백하고 같이 리터치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열정’이었다. 한동대 무전공입학제도의 특성상 미술을 공부해온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려는 모습, 그리고 틀에 박혀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하였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가끔 한 말인데, 제가 학교에 왔을 당시 학생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면서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이런 시간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본 하나님의 모습

“어느 날, 수집해 놓은 돌을 보면서 돌 안에 숨겨진 이미지를 보았고 이를 바로 시각화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각화하면서 이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돌 안에 숨겨진 이미지를 보도록 하신 것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돌을 창조해 놓으셨고 저는 단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의 시각과 생각을 바탕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그는 색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바로, 돌 안에 숨겨진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시각화시키는 입체작품을 제작하는 것. 돌 안에 있는 이미지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다른 재료를 통해 재창조(Recreation)하고 있다. 또한, 돌에 시각화한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포스터나 그래픽 디자인으로 평면화시킴으로써 다른 느낌을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김 교수는 돌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자연물을 바탕으로 한 작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아 머리모양,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아이디어를 고민하지 말

고 직접 돌아다니며 자연물을 유심히 관찰하라고 조언했다.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야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좋나요. 바로 옆에 산과 바다가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자연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각자의 시각대로 재조명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분명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김 교수는 정년퇴직 후 매 학기 강사로 초빙되어 한동대 산업정보디자인학부의 ‘드로잉기초 2’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도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기고 여전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저에게 광고와 디자인이란 평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활력소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각하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f)

이웃과 더불어 기적을 보는 청년

'향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동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 마 25:40



장애인,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독교 청년 기업가 임정택 동문을 만났다. 젊은나이에 '향기 내는 사람들'을 꾸려온 그는 청년의 포부와 자신감이 넘치는 동시에,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인도해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해 보였다. 바로 지금, 여기 포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있다는 임정택 동문(경영경제, 04학번)을 만나봤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로 있는 임정택입니다.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04학번 졸업생입니다. 학생시절인 2008년부터 한동인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은 어떤 단체인가요?

향기 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품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혁신 기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히즈빈스, 꿈꾸는 설레 떡, 향기나눔 지원센터, 그리고 향기제작소 이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히즈빈스는 장애인들을 각자의 삶의 주인공으로 양성하기 위해 만든 커피 사업으로서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꿈꾸는 설레 떡은 통일한국에서 새터민들이 주역이 되도록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한 향기나눔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부터 직업마인드, 직업예절, 작업기술까지 자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향기제작소라는 공장을 시작했는데요,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어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카페에 들어가는 쿠키나 브라우니들을 직접 만들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나머지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향기제작소에서도 역시 장애인 선생님들이 직접 일하고 계시고요.

이 일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희 '향기 내는 사람들'의 핵심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2008년 대학교 3학년 때 제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

도했어. 그 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동인들, 동업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에서 배운 가치 중 가장 의미있게 느껴졌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동인이라면 입학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말이 "배워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일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듣기에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이 말을 실현시킬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학년 때까지 이 고민을 치열하게 했었고, 주위에는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한동이 포항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현장에 뛰어나가면서 비로소 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분들을 만나다 보니, 그분들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만 나누어도 그분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한동대학교는 산속에 있잖아요(웃음). 포항 시내로, 농촌으로, 어촌

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들에 가야 해요. 글로벌은 로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포항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pecially 기억에 남는 장애인분이 있나요?

일하면서 포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리고 그분들의 욕구를 알게 되었는데, 첫째는 돈을 벌고 일하고 싶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 선생님은 20년 동안 정신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비인간적인 스스로의 삶에 무기력함을 느끼시던 분이셨는데, 히즈빈스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정신질환약을 먹으면 부작용으로 상대방 눈을 잘 맞추지 못하거든요. 또 저희 카페 메뉴가 90가지가 넘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해내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이 만든 음료를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정상적인 삶에 대한 행복, 재미를 느끼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40여년만에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덟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결혼은 무조건 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원들이 소집됐고, 머리를 맞대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프리포즈를 잘 준비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외국의 플래시몹 프리포즈 동영상을 보면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3개월 동안 매일 춤과 노래를 준비했어요. 당일 히즈빈스 문화예술회관 5호점 카페에서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선생님께서 여자친구분에게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갑자기 노래가 박진영의 '청혼가'로 바뀌더니 손님인 것처럼 앉아있었던 직원들이 두 분을 둘러싸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성공적인 프리포즈 한 달 뒤 두 분은 결혼하셨습니다.



- 1 히즈빈스 바리스타
- 2 로스팅 기계 앞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한동인 4명이 이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가족, 동료들의 만류가 심했어요. 핼박과 무시도 많았어요. 급여가 밀리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들이나 조건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보다 어려운 건 사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맞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런 고민들 아닌가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경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돈, 인맥, 능력이 갖추어져야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방식은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우리가 해온 일들의 매뉴얼, 시스템, 교육과정을 정리하고, 리더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히즈빈스 사례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루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내실 때 즉시 가서 그곳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새터민분들과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시간문제이고,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새터민들과 꿈꾸는 설레 떡을 시작하게 되었죠. 크리스천들에게 통일 준비란 첫째 복음이고, 둘째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한



향기제작소 전체 직원들



히즈빈스 상공회의소점

히즈빈스 동빈나루점

히즈빈스 문화예술회관점

히즈빈스 시청점

사람들만 준비하면 통일 후 북한에 있는 분들과의 연결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새터민 분들이 주역이 되어 복음과 전문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구, 홍보, 생산까지 모두 새터민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떡 공장을 만들어 굶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을 전할 비전을 품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든, 저희 임원 전체로든 기도제목으로 항상 먼저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희 일이 처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에 항상 붙잡혀 인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욕심들과 공격을 잘 방어하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



교육을 통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티치포올코리아’ 최유강 대표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벤더빌트 피바디교육대학원을 거쳐 교육봉사단 티치포올코리아(Teach for All Korea)로 활동하고 있는 최유강 대표(국제어문, 96학번).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동대학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화를 비롯한 집중적인 컴퓨터교육, 영어교육 등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는 과정이지만 당시로써는 파격적으로 앞선 교과과정이었습니다. 1기 입학생들이 95학번 입학생들이 기존 명문대학에 복수합격을 하고도 한동대학에 진학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주위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 한동대학교에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제 대학생활을 요약하자면 ‘만남의 축복’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포함해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한동에서 만난 분들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나중에 교육봉사를 인생의 방향으로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hy Not Change The World?’, ‘배워서 남 주자’라는 한동대학교의 비전 역시 제가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정책대학원)에 어떠한 계기로 들어가셨나요?

교육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하버드 케네디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한동대학교 졸업 즈음에 제 인생의 방향을 ‘교육’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하버드 케네디스쿨과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원서를 내었는데 두 곳 모두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field)에서 일하는 체질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두 대학원 중 최종적으로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또한 이런 현장의 리더들이 모이는 케네디스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의 성공적인 교육봉사단체인 티치포아메리카(Teach For America)를 알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봉사단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치포올코리아(Teach for All Korea)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티치포올코리아(이하 TFA)는 사단법인 드림티치포올이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봉사단이며, 우리나라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 새터민 아이들, 농·산·어촌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저희가 돌보는 대상입니다. 저희 활동은 크게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 ‘방학 캠프’, ‘컨퍼런스’로 나누어집니다. 방과 후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선정하여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경기도 파주 세경고등학교(옛 파주공고)의 경우 주5일, 하루 5시간씩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청소년들에게 영어회화나 신문읽기 등의 수업도 제공하고요. 여름 캠프는 저희가 매년 8월에 ‘차세대 통일리더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5명의 북한이탈청소년들과 5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고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의 수업과 동기부여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컨퍼런스는 저희 활동의 이론적인 부분을 채움과 동시에 많은 분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5월에는 유엔 아카데미인펙트 한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회 글로벌 교육 컨퍼런스를 주최하였습니다. ‘통일 한국의 교육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비롯한 6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TFA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TFA의 목표는 ‘교육을 통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돕는 것이 저희 단체의 역할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여건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교육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



지난 5월 25일 밤 9시, ‘노래해서 남주자’라는 주제와 함께 한동대 학관 104호에서 서당골 콘서트가 열렸다. 글로벌리더십학부 김윤규 교수 팀인 ‘서당골 20기’의 주최 아래 갓스펠로우즈(힙합), 걸즈이카펠라(여성이카펠라), 네오(밴드), 두나미스(남성중창단) 동아리들의 특별 출연과 함께한 이번 콘서트는 전 좌석이 매진되며 성황리에 끝났다. 수익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포항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름 교복 지원금으로 전해졌다.

한동대 학생들은 매년 한 교수 아래 30~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팀을 구성한다. 다양한 학부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한 팀에 모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한 번 이상 모여 교제하고, 10만 원 프로젝트*, 워크듀티(Work Duty)* 등 여러 단체활동을 시행한다. 서당골 콘서트도 이러한 단체활동 중 10만 원 프로젝트로 기획됐다.

“학기 초에는 일반적인 워크듀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개별 면담을 통해, 팀원 중에 공연이나 음악 쪽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콘서트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의논해 보고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팀장 오석일(전산전자 10)

우선 기획팀이 구성돼 ‘노래해서 남주자’라는 주제를 잡고 불우한 학생들에게 여름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기획팀 외에 홍보팀, 장사팀, 서당골밴드 등 여러 팀이 구성되어

팀 이름 ‘서당골’은 한동대가 개교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김윤규 교수는 한문수업을 가르치다 보니 별명이 ‘훈장님’이었고 자연스럽게 팀 이름 또한 서당골로 정해진 것. 서당골은 95년 1기부터 시작해 20년이 지난 지금은 서당골 20기(이하 서당골)가 활동하고 있다.



수익금을 모으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콘서트 일주일 전에는 길거리 화채 장사도 진행됐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던 중 ‘배워서 남주자’라는 우리학교 모토에 맞춰 ‘노래해서 남주자’라는 주제로 방향을 잡았고, 동아리도 이에 맞게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출연진에게만 공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팀도 무엇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당골밴드도 구성하게 되었고요. 수익금은 많이 모을수록 좋았기 때문에 화채 장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화채 재료비가 많이 들어 장사 수익금은 콘서트 준비 비용으로 다 쓰기는 했지만요.(웃음)”
- 팀원 이영진(국제어문 08)

사실, 서당골 콘서트는 준비 중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른 동아리와 공연 당일 대관 일이 겹쳐 공연이 취소될 뻔하기도 하고, 사회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새로운 사회자를 구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를 팔기 시작한 이틀 만에 공연이 매진되고 공연도 문제 없이 진행되어 포항중학교에 교복을 전달할 수 있었다.

“솔직히 표를 팔기 전에 콘서트가 잘 열릴 수 있을지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많은 학우 분들이 표를 사주셔서 예상외로 이틀 만에 매진됐습니다. 공연의 취지를 보시고 표를 사주신 것 같은데 이 점에서 학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표를 판 수익금은 순수익으로 남아 포항중학교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교수님과 함께 포항중학교를 방문해 교복상품권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관계자분이 굉장히 고마워하셔서 뿌듯했습니다.”
- 팀원 황단비(공간시스템 13)

‘노래해서 남주자’라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 서당골 콘서트장에선 관객들의 환호와 팀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동대의 아름다운 팀 문화를 주도하는 서당골 20기. 그들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R)

용어 설명
*10만원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주 코스트 힐 커뮤니티 교회(Coast Hills Community Church)에서 지원자 100명에게 각각 100달러를 주며 진행 하였던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한, 10만원으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팀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다.
*워크듀티(Work Duty): 팀원들이 함께 일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학교 곳곳에 필요한 의자를 만들거나 학교 뒷산에서 무농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각자가 가진 재능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문화선교사역을 위한
동아리 연합
MISSION AND TALENT

'Mission aNd Talent'(이하 MNT)는 7개 동아리 80여 명의 학생들이 연합하여 이뤄진 문화선교사역 단체로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휘한 다양한 공연과 콘텐츠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NT의 첫 시작은 2002년 겨울, MIC(기독교댄스), IFR(국제지역연구소), 피치파이프(아카펠라) 세 단체의 학생들이 모여 태국과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MIP 연합문화사역으로부터 시작됐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MNT의 지도교수로 있는 글로벌리더십학부 김군오 교수는 "태국을 방문한 MIC의 공연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태국자매가 1년 후 MIP 사역의 자리에 가족과 함께 온 모습을 보았다. 그 때 이 문화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계속해야 할 결심을 했다."라며 MNT가 시작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 후 2003년, MIC(기독교댄스), 챔버(현악단), 리퀴드(락밴드)로 구성된 MNT 1기가 시작됐고, 뒤이어 하향(한국무용), 한풍(사물놀이), 갓즈펠로우(힙합), 두나미스(남성중창단), 프레이즈(예배인도팀), 할루시네이션(마



술), 걸즈 아카펠라(여성 아카펠라) 등의 동아리들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13번의 아웃리치 동안 총 10개 동아리, 약 620명이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MNT사역에 동참하였다. MNT 사역을 위해 초기에 구성된 22개 기독교 콘텐츠 역시, 현지인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K팝, 팝송, 현지 노래, 만화주제가, 영화 OST 등을 적용한 51개로 늘렸고 이를 춤과 노래, 랩, 풍물놀이, 한국 무용 등 각자의 재능으로 전달하고 있다.

초창기 MNT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공연할 장소도 없었지만 학생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지금의 MNT가 구성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문화 사역에 있어 한국 무용의 필요성이 인식되자 윤지예(언론정보 05) 학생은 반년 동안 한국무용극단에 들어가 한국 무용을 배웠고 이를 토대로 지금의 한국무용 동아리 하향이 만들어진 사례도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인지 2011년에는 방콕의 100여 개 교회가 연합해 방콕 시내 중심지의 롬피니 공원을 통째로 빌려 방콕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 동안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으며, 후아인과 파타야 지역에서도 MNT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인선교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화재로 인해 예배 처소를 잃게 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자선 공연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바 있다.

MNT는 사역에 앞서 매주 예배와 훈련, 셀모임을 통해 준비한 후 매

년 12월 새로운 기수들과 함께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고 있다. 놀라운 점 중 하나는 MNT의 경비는 대부분 자비로 이뤄지지만 학생들이 이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이득은 없지만 학생들이 가진 복음전파와 문화선교에 대한 사명 속에서 MNT에 속한 학생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1년의 훈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참가비를 모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성장함을 겪는다. 두 번의 아웃리치를 다녀온 김혜스(경영경제 12) 학생은 "1년의 기간은 문화사역에 앞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체력적,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에도 이를 넘게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MNT 학생리더로 섬기고 있는 조석현(언론정보 08) 학생은 "선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공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MNT 공동체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라며 MNT를 설명했다.

MNT는 무엇보다 기도로 쌓여졌다고 말하며 기도를 통한 동역을 부탁하는 학생리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라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들의 사역이 더 큰 은혜로 풍성해지길 기대해 본다. (IU)



클래식과 재즈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한동오케스트라’

개인의 소리가 모여 귀한 하모니를 이루다

한동오케스트라는 클래식과 재즈 연주를 중심으로 교내 및 대외 행사에서 한동대학교를 대표해 공연하고 있다. 이곳의 악장 겸 비올라 수석 임현진(공간시스템 12, 이하 임) 학생과 학생지휘자 겸 피아노 수석 박은택(생명과학 13, 이하 박) 학생을 만나 한동오케스트라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한동오케스트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 한동오케스트라는 2012년 관악 동아리 ‘Winds’와 현악 동아리 ‘Soloist’가 합쳐져 출범하게 된 클래식 공연 동아리입니다. 과거 두 동아리가 더 좋은 공연을 위한 고심 끝에 각각의 동아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클래식’, 즉, 고전이라는 음악의 한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청중에게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연주자의 한계를 벗어나 고품격 음악공연으로 한동인 그리고 포항지역 주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저희는 2013년도부터 학위 수여식, 입학식 등의 행사 공연을 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기에는 자체 공연, 2학기에는 포항시와 연계하여 외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 소망센터에서 미혼모들을 위해 자선 콘서트를 열었으며 공연 수익금을 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신앙 공동체인 북한 중보기도 모임의 주최로 열린 통일음악회에 초대받아 새터민인 김철웅 피아니스트와 협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Q. 현재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 OB를 포함한 단원은 총 64명이며, 현재 연주를 하는 단원은 39명입니다. 악기구성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등 현악기 파트와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팀파니, 피아노, 피콜로 등 관악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악보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단원, 공연 사진 촬영 담당 단원 등이 있습니다.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을 통해 이뤄집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모든 단원이 모여 연습을 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엔 파트 별로 나누어 연습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한계로서, 정식 오케스트라에서 필요한 악기구성을 완벽히 채우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Q. 공연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 2012년, 한동오케스트라는 아기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자리를 잡는데 정신이 없어 일정주체를 가지고 공연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두서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자’라는 큰 테마를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도록 재즈풍의 음악과 영화 OST를 클래식으로 연주하는 공연기획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박: 공연기획 외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오케스트라 안엔 ‘울타리’라는 신앙공동체가 있습니다. 각자 파트에 상관없이 구성원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기도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Q. 정기 모임과 연습을 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일화가 있다면?

임: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슬펐던 기억인데 2012년도 오케스트라 창설 당시, 악기 구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음악학부가 없는 한동대의 사정상 비올라, 오보에, 바순, 호른 등의 악기를 구할 수 없었고 대신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플루트로 다른 악기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오케스트라에서는 2명의 플루트 연주자가 필요하지만, 그 당시 25명의 단원이 플루트로 바순 파트를 맡았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웃음)

Q. 마지막으로 한동인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40여 명의 개인들이 20년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꿈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동오케스트라’라는 공동체에 모인 것만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소리가 모여서 하모니를 낸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H)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캠퍼스를 위한 스마트캠퍼스 구축

한동대학교, 자체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캠퍼스 구축



한동대 학생들은 학생증이나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강의 출석, 도서관 및 학생식당 이용과 결제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스마트캠퍼스 덕분인데, 스마트캠퍼스란 대학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서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대학의 지식 시스템들을 하나의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을 말한다.

한동대만의 스마트캠퍼스 개발

한동대의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2008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 대학에는 스마트캠퍼스 열풍이 불고 있었고, 이에 발맞춰 한동대도 업무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당시 주로 상용되던 스마트캠퍼스 시스템은 U-캠퍼스로서 무인정보 단말기와 전용 케이블 같은 하드웨어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었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2011년 10월부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NFC)*과 사물 인터넷(IoT)* 등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캠퍼스 시스템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KT와 협력하여 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의 'u-IT신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KT', 'BC카드', 'TBK 기업은행' 등의 기업들도 한동대 스마트캠퍼스 사업에 참여 중이다.

NFC와 IoT를 통한 스마트캠퍼스 구축

스마트캠퍼스는 NFC와 IoT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전에는 교내구성원들이 교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단말이 필요하였지만, 이제 NFC 단일 인터페이스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학교 버스, 학생식당, 프린터 결제를 하고 강의 출석, 도서관 및 기숙사 이용 등이 가능하다. 2014년 2학기부터는 학생증을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IoT를 통해서 전력/냉난방기/영상보안 모니터링과 강의실 기자재/출입문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캠퍼스 내 에너지 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일례로 강의실이나 도서관 열람실의 냉난방, 전등에 대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산학협력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이 같은 선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일본 와세다 대학, 메이지 대학과 국내 25개 대학이 벤치마킹을 위해 한동대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구글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최고 경영자도 한동대 강의실 책상의 NFC 스티커와 스마트폰을 통한 출석체크 시스템을 언급하며 한동대 스마트캠퍼스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구글코리아와 한동대는 스마트캠퍼스 모델을 확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에 더불어 스마트캠퍼스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는 스마트캠퍼스 연구성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한동대 조운석 학술정보처장은 "학생들이 신기술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은 학생 자신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며 "과거 인터넷 기술을 먼저 접한 것이 벤처 창업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처럼, NFC와 IoT 같은 신기술을 먼저 접한 한동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f)

용어 설명

*비접촉식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RFID 인식 기술의 한 종류로 가까운 거리에서 단말기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이 기술을 사용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해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과거 TV 아파트 광고에서 여배우가 전화기로 집안 불도 켜고, 가스 밸브도 잠그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M2M(Machine to Machine) 네트워크망: 폐쇄회로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에서는 전혀 접근되지 않는 네트워크망이다.



Memorial Tree Project

2014

한동숲 제1호 나무

한동대 20주년 기념숲

한동 20주년 기념 숲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다**



2013년 3월 9일, 단순한 불장난 때문에 포항시 북구 용흥동·덕수동 일대의 10ha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불에 의해 많은 이들이 잊지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지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때에 포항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한동 20주년 기념 숲’ 프로젝트이다.

한동 숲 프로젝트의 시작

포항 산불 이후 지난 6월, 포항시와 사회적 기업인 ‘Tree Planet’이 도시 숲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Tree Planet 대표 김형수 동문은 이 MOU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직접 한동대를 방문해 학우들에게 숲 조성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자는 강의를 했었고, 이 강의를 계기로 한동대 학생들이 모여 ‘한동 20주년 기념 숲(이하 한동 숲)’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다. 지역사회의 아픔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자는 마음이 모여 GEA, 전산전자공학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경영경제학부 소속의 학생 9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동 숲은 교내 부지가 아닌 곳에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숲을 조성하게 된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프로젝트 팀장 정유진(공간환경시스템 10) 학생은 “올해는 우리 학교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20주년 기념 숲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한동을 사랑하는 많은 동문, 재학생, 교직원 선생님, 학부모님들부터 참여를 이끌어내어 귀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처음 한동 숲 프로젝트 팀은 숲 조성 기금 1,000만원 후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모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이었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를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 기도로 분류했다. 이후, 계좌이체와 텀블러 판매를 통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학부모기도회 정기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한동 숲 조성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최유강 총동문회 대표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한동 숲 프로젝트를 알릴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 팀장인 정유진 학생은 “많은 학부모님과 동문이 한동 숲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해줍니다. 한동인으로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마침내 지난 3월 28일, 한동 숲 프로젝트 팀은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나무 심기 행사와 함께 한동 숲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한동대 부총장, 총동문회, 학부모기도회, 교수, 총학생회장, 재학생 등 든든한 한동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다

한동 숲 프로젝트팀이 가장 큰 가치를 둔 것은 ‘배움의 실천’이었다고 한다. 각자의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또한, 한동 숲 프로젝트는 ‘배워서 남 주자’라는 학교의 슬로건이 행동까지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프로젝트 팀장인 정유진 학생은 “한동 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산불이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닌 이웃의 일이라는 의식 전환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동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항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공감할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팀원들을 대표해서 전했다.

국유지에 조성된 한동 숲은 향후 포항시의 지속적인 관리와 ‘Work Duty’를 통한 재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이어갈 예정이다. (H)



17년을 이어오는 한동대학교와 피지공화국의 각별한 인연

주한피지대사 한동대 방문

지난 5월 8일과 6월 2일, 피지공화국 주한대사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두 번에 걸쳐 한동대를 방문했다.

경상북도 크기의 피지공화국은 수도 수바(Suva)가 위치한 본섬 바티 레부와 북섬 바누아레브 및 약 330개의 섬으로 이뤄진 남태평양의 제도이다.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피지는 71년 수교 시작 이래 대한민국과 우호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2년 7월 주한피지대사관이 개관하여 외교, 경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엔 한동대를 방문한 필리모네 카우(Filimone Kau) 주한대사는 피지 토양광물자원부 사무차관, UN대리대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2012년 주한피지 초대 대사로 파견되어 한국과 피지 간 지속적 상호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카우 대사의 첫 방문은 피지공화국 명예 총영사로 임명된 한동대 장순홍 총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사실 한동대와 피지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1997년, 피지의 기술교육학교인 비전 대학(Vision College)의 초청으로 컴퓨터 기술 전수와 선교를 위한 한동대 팀이 피지를 방문했다. 그리고 당시 선교 팀의 학생 열 명 중 두 명(故 강경식, 권영민 군)이 식수시설 개선을 위한 우물 만들기에 동참한 후,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려 순교한 바 있다. 당시의 순교 사건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그 일이 있었던 후 몇 달 뒤 피지에서는 약 700여 명의 원주민들이 회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동대는 지금까지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선배들의 뒤를 따라 세계 각

곳에서 봉사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동대는 학교의 근본 가치인 '사랑, 섬김, 희생'을 몸소 실천한 두 학우를 기념하기 위해 캠퍼스 내 피지 기념 광장을 조성하였다.

카우 대사는 방문 일정 동안 특별히 故 강경식, 권영민 학생의 부모님이 함께한 오찬에 참석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후 교내 피지 순교 기념광장에서 헌화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양측은 ▲피지공화국과 한국의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피지 대사관과 한동대의 협력 ▲한동글로벌 학교 분교 설립 검토 ▲가나안 농군학교 연계 국제개발 협력 사업 ▲피지 내 순교 학생 기념 공원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명예 총영사 임명장 수여를 위해 6월 2일 다시 학교를 방문한 카우 대사는 지난 1997년 한동대 학생들이 피지 봉사활동 중 순교한 것에 따른 유감과 감사를 표하는 한편, "피지와 대한민국이 1971년 국교 수립 후 43년간 우호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는데 양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장순홍 총장도 "대한민국과 피지가 더 가까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시점에 피지 명예 총영사로 임명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는 향후 피지 순교 기념비 설립과 양국 대학차원의 교류를 위해 올해 7월 중 대표단을 피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H)

지친 시험 기간,
선배가 미리 낸 커피 드시고 가세요,
'선미커피'



한동대 선배들의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총동문회 지원 사업 선미커피로 다시금 피어났다.

선배가 미리 낸 커피란 뜻의 선미 커피 사업은 한동대 총동문회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한 후배 지원 사업이다. 이는 총동문회의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알리고, 재학생들에게 기말고사 기간에 도움이 되는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선배와 후배가 서로 교감하고 총동문회에 대한 친밀도를 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한동대 도서관에 위치한 카페 히즈빈스에서 실시된 이번 사업은 3일 동안 재학생 270명(1일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음료/커피 또는 응원메시지 쿠폰을 전달받았다. 음료/커피에 당첨된 학우는 아메리카노, 허브차, 유자차, 요거트스무디, 아이스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었으며, 응원 메시지의 경우 졸업생 동문들이 직접 남긴 격려의 말, 좋은 글귀, 성경 구절 등으로 이뤄져 시험기간에 지친 재학생들은 다시금 공부에 집중할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커피를 받은 재학생은 다시 감사의 메시지와 사진 인증을 통해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표실했다. 선미 커피에 당첨된 한 학생은 "시험으로 지친 월요일 아침에 선배들이 사주는 음료를 마시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라며 답례의 말을 전했다.

총동문회는 지속해서 선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우들의 학업과 삶에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을 지원하는 선미 사과, 기숙사 방모임을 지원하는 선미 피자 등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후배를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선미커피, 선미사업. 앞으로 한동의 새로운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아갈 기대해 본다. (H)

장애인들과 더불어설렘과 기쁨을 나뉘요 제7회 사랑의 마라톤

Be the PACEMAKER



지난 5월 24일, 뜨거운 태양 아래 환호해맞이공원 중앙공원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은 제7회 사랑의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 참가자들이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사랑의 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를 이루어 코스를 완주하는 마라톤 행사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한동대학교의 교훈인 '사랑, 겸손, 봉사'의 바탕 위에서 준비한 사랑의 마라톤은 장애인에 대한 이웃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통해 소통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시 장애인, 포항시대학연합 학생,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약 800여 명이 참여하여 3km, 5km 마라톤과 동아리 공연, 각종 부스들을 통해 함께 즐기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BE THE PACEMAKER'로 좁은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도우미를, 넓은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후원하는 손길들을 뜻한다. 특별히 올해는 한동대, 포항공대, 선린대로 이루어진 포항시대학연합과 포항 MBC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기업과 교회, 병원들이 후원으로 동참했다.

이번 행사의 디렉터를 맡은 한동대 양진규(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09학번)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같이 뛰고,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웃으며 서로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소통하고자 준비했다. 이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 한쪽에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 자원한 봉사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참가 장애인들은 접수처에 도착해 배변과 옷을 수령하고 봉사자들과 짝이 지어지면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참가 장애인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많아 손주 격인 봉사자와 이런저런 여담을 나누며 서로 친해지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참가자와 봉사자 간에 손을 꼭 붙잡고 행사장 이곳저곳에 마련된 부스를 함께 방문하고 즐기는 모습들도 보였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별히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사고 만전의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재차 강조되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은 다같이 준비운동을 하며 즐겁고 안전한 마라톤 행사가 되기를 다짐했다. 마침내 8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섰다. 출발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의 나들이에 설렌 듯 함박웃음이 가득했다. 곧이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렸고, 한 팀, 한 팀씩 천천히 출발했다. 봉사자들과 참가자들은 함께 바닷가를 에두르는 코스를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걷고, 또 때로는 쉬면서 서로 물을 챙겨주거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온 참가자들은 마련된 식당에 웅기종기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눴다. 포항시 기계면 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이석득 할아버지는 “해변가에서 바람도 쐬고 기분이 좋았다. 함께한 학생이 고생을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득 할아버지와 함께 달린 한동대 최우림(GLS, 14학번) 씨는 “새내기 동기들과 함께 참여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많은 일반인들도 함께 5km 달리기 참여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 자녀들과 함께 일부에 참여했다는 김홍석 씨와 자녀 김가연, 김기영 학생은 “다시금 장애인들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되어 좋았다. 완주해서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동대학교 19대 총학생회 박사훈 회장은 “장애인분들과 도우미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오히려 준비한 우리가 힐링되는 기분이었다. 항상 웃으며 격려해주신 장애인분들께 특히나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사랑의 마라톤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7년째 사랑의 마라톤이 이어져 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주 바깥출입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기분 좋은 나들이의 기회로, 포항의 장애인 및 노인들을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는 학생 봉사자들에게는 배움의 장으로 이어져 온 사랑의 마라톤은 어느덧 한동의 특별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넘어 포항시민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랑의 마라톤의 앞날을 더욱 기대해 본다. (f)



HGU NEWS

장순홍 한동대 총장,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받아



장순홍 한동대 총장이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을 제47회 과학의 날과 제59회 정보 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받았다. 이 기념식은 지난 4월 21일 오전 11시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매년 과학의 날(4월 21일)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에 즈음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과 설립과 원자력 석·박사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고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임계열 유속 연구와 나노유체 연구에 있어 선구적 역할(아시아 최초 미국원자력학회(ANS) 학술상 수상)을 수행하였으며, 원자로 안전설비 연구 및 발명으로 원자로 안전 향상과 한국형 경수로(OPR1000, APR1400) 설계 및 기술 자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장 총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칼리파 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인력 교류 및 교육·연구 협력으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에 공헌하였고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 및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훈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하여 역대 장관과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 등 6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진흥 유공자에 대해 훈장 및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한동대 학부생 논문, SCI(E)급 국제학술지 등재



한동대 학부생 2명이 쓴 논문이 SCI(E)급 저널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생명과학부 황현규(4학년), 김민서(3학년) 학생이 함께 쓴 '바이오센드 필터의 생물(여과)막에 대한 위해성 평가: 비위생적인 원수에 의해 형성된 생물(여과)막에서의 기회성 병원균 동정' 논문이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분야의 SCI(E)급 국제저명학술지인 '국제환경연구 공중보건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지난 2월 14일 게재 되었다.

이번 연구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학부생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황철원 교수(글로벌리더십학부 환경생명과학 전공, 교신저자)의 지도로 진행 되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황현규, 김민서 학생이 연구 설계, 분석, 논문 작성, 게재 등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에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신수민(생명과학부, 2학년) 학생은 이번 연구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생물(여과)막의 부주의한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을 지적한 논문으로, 바이오센드 필터(Biosand filter)의 생물(여과)막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 낸 연구이다. 바이오센드 필터에서 생물(여과)막의 정수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이에 가려져 생물(여과)막이 적절히 처리되지 못할 때 기회성 병원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은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 바이오센드 필터가 개발대상국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공식적인 통계만 37개국 12,346개 보급기관 설립), 현재까지 생물(여과)막의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했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한동대-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학·연 협동과정 설치



지난 2월 24일 한동대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원장 윤종민, 이하 로봇연)은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학위 과정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로봇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동대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로봇연은 특수 분야의 전공 운영과 실험실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협동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로봇연의 연구원을 대학원의 겸임교수로, 대학원의 교원은 로봇연의 겸임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대학원 과정 학생들은 로봇연의 연구생으로 활동한다.

윤종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인력 및 시설 협력 이외에도 공동 프로젝트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양 기관이 로봇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같이 노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동대,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청년창업 활성화 협약 체결



한동대와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손민호)가 청년 창업 활성화로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 했다.

한동대와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2월 25일 한동대 현동홀 소회의실에서 한동대 장순홍 총장과 한국은행 포항본부 손민호 본부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기관은 ▲청년창업 교육 공동 추진 ▲청년창업 시설과 자금 확보 ▲기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장순홍 총장은 "일자리 창출은 창조경제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일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며 "한동대는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지역에 공급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동대는 지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여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호 본부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학생들에게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창업 활성화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며, 한동대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대, 대기업 '캠퍼스 리크루팅' 이어져



상반기 공채시즌에 앞서 대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팅(구인 활동)을 위해 한동대에 방문 중이다. 지난 3월 10일 이랜드시스템즈를 시작으로 3월 17일 삼성 SDS까지 총 10개의 대기업 계열 회사가 한동대에서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방문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방문한 이랜드시스템즈는 한동대 오석관에서 기업설명회를 갖고 학생들을 상대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입사 상담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현대중공업도 방문해 입사상담과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삼성전자 세트(SET)부문과 제일기획, 지난 13일에는 삼성카드와 호텔신라가 방문해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12일에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제일기획 고동주 씨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입사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며 "특히 단순히 근무 조건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각자의 꿈에 얼마나 더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른 학교와는 다른 참신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14일에는 삼성 계열사인 삼성화재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17일에는 삼성물산 상사부문과 삼성 SDS가 한동대에 찾아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했다.

이번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가한 객민우 학생(경영경제학부, 4학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양한 기업들의 업무 내용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뻐다"며 "앞으로 취업 준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에 많은 대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으로 내방한 것에 대해 한동대 주병창 학생경력개발팀장은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 관심기업에 대한 정확한 취업정보를 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학생경력개발팀에서는 더욱더 많은 대기업들이 캠퍼스리크루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 보고회 열어



한동대는 지난 3월 27일(목) 오후 4시 한동대 효암 별관 3층 회의장에서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동대의 유네스코 유니트윈(UNESCO-UNITWIN; University Twining and Networking) 사업은 22개 개도국 40개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다.

한동대 유니트윈 사업의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발전 방안과 향후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가 계획되었다.

한동대는 최근 다년간 국내 주요언론의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선진국 대학과의 연계강화나 외국인 학생 유치 등이 아닌 개도국의 대학역량 강화와 빈곤탈출지원 등의 국제개발협력 실천에서 주로 기인하였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동대는 월드뱅크(World Bank)가 분류한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을 중심으로 주로 우리정부의 협력대상 개도국의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의 역량강화, 지도자 양성사업 및 지역발전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개도국 내 지역 거점센터를 구축해 왔다.

한동대의 대표 5개 사업의 성과보고는 지난 4년간 사업 결과를 발표, 공유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체 및 희망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대 총학생회,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열어



한동대 총학생회(회장 박사훈)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포항점에서 제1회 한동을 바꾸는 시간 - 영화 '신이 보낸 사람(감독 김진무)' 상영회를 열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 지하교회 사람들이 자유와 희망 모든 것이 박탈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몰래 신앙을 지켜나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주인공 철호(김민권)가 마을의 지하교회 사람들과 탈북을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이 영화는 북한과 인권, 통일, 탈북 문제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이날 상영회에서는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김진무 감독과 출연배우 최선자, 지용석 씨가 함께 자리 하여 참석한 관객들과 영화를 관람한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관객들은 영화의 제작 의도, 제작 뒷 이야기, 북한의 인권, 통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박사훈 총학생회 회장은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기독교, 인권, 북한이라는 한동대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가치 및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며 "학우들은 물론 포항지역의 북한 및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통일한국을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날 상영회 입장권 판매 수익금, 한동대 '북한을 살리는 교수들의 모임' 교수들과 지역교회의 기부금 전액은 탈북난민들의 구출에 힘쓰고 있는 'NKC에바다선교회'에 전달되었다.

한동대, 유엔 공보국 마허 나세르 국장 초청 특강 열어



유엔 공보국 대외협력부문 (Outreach Divisi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마허 나세르(Maher Nasser) 국장의 특강이 지난 5월 14일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올네이션스홀 414호에서 열렸다. 나세르 국장은 가자지구와 예루살렘, 암만, 카이로, 빈, 뉴욕에서 난민과 마약 범죄, 공적 정보 등을 다루며 26년 이상 유엔에 몸담은 베테랑이다.

나세르 국장은 '유엔의 역할과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AI)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두 가지 함양해야 할 자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공에 너무 얽매이지 말 것을 말하며 삶의 수수께끼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고의 힘을 키워갈 것을 강조하였으며 둘째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소통의 능력, 즉, 언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나세르 국장은 젊은이들이 삶에 나타나는 위험 혹은 모험에 소극적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나세르 국장은 어린 시절 난민의 자격으로 유엔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받은 자신을 예로 들며, 유엔이 단순히 분쟁해결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환경, 대테러리즘, 질병,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의 모습을 설명하였다. 한동대학교에 대해서는, 한동대가 전 세계 10개 유엔 아카데미 임팩트 글로벌 허브 대학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한동대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혁신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운동 및 UN 봉사단 활동에도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 현장에 있는 가치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 美변호사 시험 26명 합격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졸업생 26명이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실시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워싱턴 D.C.에서 3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시험의 경우, 단일 시험으로서는 최다 인원인 26명을 배출해 다가오는 7월 시험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을 치른 전체 응시생들의 평균 합격률은 47%이다. 이에 비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생의 합격률은 그보다 약 2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시험을 포함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전체 졸업생들의 미국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은 69%로서,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유수의 로스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미국식 로스쿨을 표방하며 2002년도에 개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졸업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왔다. 현재까지 미국 7개 주에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번 합격자를 더해 전체 255명의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교수진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과정이 100% 영어로 진행된다. 또 재학 기간 동안 정부 부처, 대검찰청, 대법원, 국내·외 로펌, 기업 등의 인턴십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반영하는 능력도 동시에 배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변호사 배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법조인 양성의 결실도 나타나고 있다. 졸업생들이 소정의 현지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응시 절차를 통해 인도,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많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업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에 합격한 레이첼 니무(Rachael Ndimu, 여, 29세, 케냐)도 이 중 한 명이며,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해 이번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레이첼 니무는 “아프리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 기업에서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릭 엔로우(Eric Enlow, 미국 변호사)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원장은 “최근 우리 대학원 졸업생의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상승 추이는 우리 대학원 졸업생의 학문적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변호사로 활동중인 졸업생들의 평가도 우수하여 법률시장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법률대학원, 국내 최초로 ‘국제협상대회 세계결승전’ 유치 및 개최



전세계 유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협상 분야 최고 권위의 대회라 할 수 있는 국제협상대회(International Negotiation Competition 2014)가 국내 최초로 포함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에서 열렸다.

포스코가 후원하는 올해 국제협상대회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동대에서 열렸다. 국제협상대회는 로스쿨 학생들의 협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98년 미국 페퍼다인 로스쿨(Pepperdine Law School)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그 후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대회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자국에서의 예선전을 통과한 대한민국,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러시아, 뉴질랜드 17개국의 대표팀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왕중왕전이다. 본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이 아니라 각 참가팀이 세 번에 걸쳐 각기 다른 팀과 협상 라운드를 벌이게 되며, 이를 통해 최고의 협상팀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위원은 국제협상대회 상임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과 국내외에서 초빙된 협상 분야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되었다.

미국식 로스쿨 교육 과정을 갖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은 2005년 이후로 이 대회에 참가해 왔으며, 2008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에서 비영어권 국가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여 대회 관계자 및 참가자들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 후 대회에서도 4강 이내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으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올해 국제협상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협상(Negotiation)은 통상 로스쿨에서 변호사 실무 역량(Lawyering Skills)을 제고시키기 위해 강의되는 과목 중 하나다. 최근 들어 협상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FTA라는 국가간의 협상을 통해 국가 간의 이익이 조율되고 있으며, 기업 간에도 협상은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에릭 엔로우(Eric Enlow, 미국 변호사) 원장은 “이번 국제협상대회의 국내 유치를 통해 협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뿐 아니라, 협상 전문가 양성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해 실시한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한동대가 선정되었다. 한동대는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 역량강화, 학생교육활동 지원, 학교교육정상화 지원,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포함한 평가인력의 전문성 향상, 전형개선을 위한 연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국비 12억 8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입학 전형을 고교 교육과정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꿈과 끼가 반영되는 대입 전형 및 고교-대학 연계 활동들을 대학들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총 610억을 투입해 60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형태로 대입전형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동대는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선발되었고, 지난해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협력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고교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됨으로 그 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동대는 올해부터 대학 입시를 종전보다 간소화하고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을 확대하여 대학 입학 기회를 넓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5학년도 한동대 모집요강에 따르면 정원 내 모집인원의 80%인 599명을 수시모집으로, 나머지 20%인 152명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며, 수시모집은 입학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부(종합) 위주 전형으로 개편하였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종전에 수시모집 4개, 정시모집 1개로 총 5개였던 전형 유형을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수시모집 3개, 정시모집 1개로 총 4개 전형 유형으로 간소화하였고, 수험생들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접에서 영어, 수학 중심의 기초학업능력 평가를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하여 전체의 10.7%를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발하며,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여 정원 내 40명을 선발한다.

한동대,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26억원 국비 확보



한동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2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연 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모두 1조 2천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특히, 한동대는 대경강원권역에 3개 사업단을 선정하는 지역전략분야에서 소규모 대학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역전략분야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한동대는 대경강원권역에 3개 사업단을 선정하는 국가지원 국제화 분야에도 선정되었다. 이는 한동대가 개교초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 역량에 집중한 결과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다.

한동대는 지역전략분야에서는 ‘동해안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으로, 국가지원 국제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글로벌 창조혁신(Creatinnovation) 인재양성 사업단’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한동대는 연간 26억원, 향후 5년간 모두 130억원의 국고를 확보하였다.

‘동해안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동대의 교육역량과 포항공대의 연구역량의 결합으로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 에너지-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법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글로벌 창조혁신(Creatinnovation) 인재양성 사업단’은 개교 초부터 글로벌 실무인재양성을 일관 되게 추진하여 축적된 우수한 국제화 역량으로 글로벌 역량과 소프트웨어 융합능력을 동시에 갖춘 창조혁신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한동대 장순홍 총장은 “이번 특성화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글로벌(Glocal) 현안 중심 교육-연구-창업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학 역량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포항을 포함한 대경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인재 양성을 지역 혁신과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총장 동정

- 2.4 한동대학교 제 5대 총장 취임식
- 2.19 청와대 대학총장 초청 만찬 간담회
- 2.21 한동대학교 제 16 회 학위수여식
- 2.24 한동대학교 제 20 회 입학식,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제 13회 입학식
- 2.24-2.28 HanST (Handong Spiritual Training)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3.6 제 46회 국가조찬기도회
- 3.1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24 전국학부모기도회 총회
- 3.28 제12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 4.8 피지 대사 방문
- 4.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면보고
- 4.16 창조경제 조찬포럼 강연
- 4.21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수훈
- 4.29 거창고등학교 강연

- 5.15 한국사학진흥재단 임원진 대상 강연
- 5.23 한강포럼 '창조경제와 안전경영' 강연
- 5.28 제 9회 글로벌인재포럼 조직위원회 정례자문회의
- 5.29 지역 기자 간담회
- 5.30-5.31 교무위원 워크숍

- 6.1 세인고등학교 강연
- 6.11-14 IAUP(세계대학총장협의회) 총회 참석
- 6.16 목회자 학부모 간담회
- 6.18 계성고등학교 강연
- 6.26-6.27 2014년도 하계대학총장세미나

교수 소식

교원 보직 발령일 2014.2.1

보직명	교수명	소속
학사부총장	이종철	경영경제학부
행정부총장	강신익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기획처장/대학출판부장	김대식	경영경제학부
교무처장	방청록	국제어문학부
학생처장/학생생활관장	곽진환	생명과학부
입학·인재개발처장	김호준	전산전자공학부
대외협력실장 /비서실장	원재천	국제법률대학원
국제개발협력대학원장/국제경영대학원장/통역번역대학원장/상담대학원장/교육대학원장/일반대학원장/평생교육원장	강성준	경영경제학부
국제법률대학원장	Eric G. Enlow	국제법률대학원
국제법률대학원 교학실장	이희언	국제법률대학원
국제법률대학원 교학실장	James T. Davis	국제법률대학원
교목실장 직무대리	김형겸	교목실
Global EDISON Academic 학부장	김재호	기계제어공학부
글로벌리더십학부장	황철원	글로벌리더십학부
기계제어공학부장/일반대기계제어시스템학과주임교수	나원상	기계제어공학부
경영경제학부장/일반대학원 경영경제학과 주임교수/경영경제연구소장	지범하	경영경제학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장/휴먼서비스연구소장	정숙희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생명과학부장/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주임교수	도형기	생명과학부
언어교육원장	George VanBruggen	언어교육원
상담대학원 주임교수	가요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기초인문사회주임교수	김종록	글로벌리더십학부
IT과정 주임교수	성금영	전산전자공학부
한동-IFE MBA과정주임교수	조대연	경영경제학부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주임교수	현창기	생명과학부
손양원 Colleague Headmaster	도명술	생명과학부

열송학사 Headmaster	Colleague 강사웅	경영경제학부
장기려 Colleague Headmaster	서병선	생명과학부
그린적정기술연구협력센터장	한윤식	전산전자공학부
상담센터장	신성만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건설환경연구소장/한동해경제문화연구소장	구자문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디자인연구소장	이진구	산업정보디자인학부
생명과학연구소장	이관희	생명과학부
정보통신기술연구소장	이준용	전산전자공학부
학문과신양연구소장	최용준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한동대신문사주간	송인호	국제법률대학원

발령일 2014.2.26

보직명	교수명	소속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주임교수	강병덕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도형기	생명과학부

발령일 2014.2.28

보직명	교수명	소속
국제처장	원재천	국제법률대학원
국제처 국제교류협력실장	가요한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국제처 국제기구협력실장	박원근	국제어문학부
글로벌창업센터장	강신익	글로벌에디슨아카데미
대학출판부장	이재영	기계제어공학부

발령일 2014.4.8

보직명	교수명	소속
통번역연구소장	박혜경	국제어문학부

발령일 2014.5.1

보직명	교수명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도형기	생명과학부

교원표창

표창명	성명	소속
농림부장관상	Wilhelm Holzapfel	첨단그린에너지환경학과
근정포장	김종배	생명과학부

정년퇴임 교원

퇴직일	성명	소속	재직기간
2014.2.28	김영인	기계제어공학부	19년
2014.2.28	김종배	생명과학부	19년



김영인

김종배

신임 교원

발령일	교수명	소속
2014.2.28	안세일	경영경제학부
2014.2.28	조이수	경영경제학부
2014.3.1	김영근	기계제어공학부
2014.3.1	김기호	교목실
2014.3.1	이재현	교목실
2014.3.1	박종수	국제법률대학원
2014.3.1	이중섭	산업정보디자인학부
2014.4.1	라채원	경영경제학부
2014.4.1	이유진	경영경제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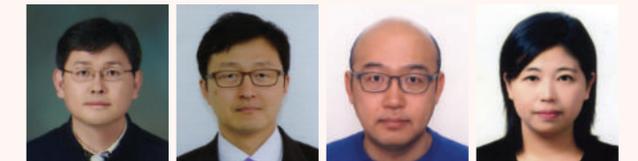


안세일

조이수

김영근

김기호



이재현

박종수

이중섭

라채원



이유진

직원 소식

신규 인사발령

발령일	성명	소속	비고
2014.4.1	고범석	교무기획팀	수습임용



직원표창

표창명	성명	소속
교육부장관 표창	201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이종식 입학사정관팀
교육부장관 표창	201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구경훈 예산팀
교육부장관 표창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유공자	김영찬 교무기획팀

국가 재정지원 사업 및 외부기관 사업과제

주관	사업명	기간	지원금액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지역전략유형) • 동해안 지속가능 에너지-환경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	2014~2019년 (5년)	연 21억원 (권소사업 대학 포함)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 (국가지원유형-국제화분야) • ICT기반 글로벌 Creat-innovation (창조혁신) 인재 양성 사업단	2014~2019년 (5년)	연 5억원
교육부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2014년 (1년)	12억 8천 만원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4 교육기부 지역 센터 • 경상권 교육기부 센터 설립-운영	2014년 (10개월)	1억 6천 만원

동문 소식

정두희(경영경제, 99학번) 동문 저서 출간

제목: 미장세 - 당신의 비즈니스에 美를 더하라
출판사: 쌤앤파커스
출간일: 4월
도서 소개: 『미장세』는 이미 있던 것을 단 0.1%만 변주함으로써 확고한 자신만의 위치를 구축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는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하고 키워드 세 가지 바로 미美/장長/세世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시작과 도약,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비즈니스 영역에 오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실천적 해법을 제공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발매]



졸업동문 모임 소개

모임명 : 포동송이
모임지역 : 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동송이 모임을 하는 졸업생들입니다. 포동송이는 '포항에 있는 한'동인이 말씀 암송하는 '이쁜'모임 이란 뜻입니다. 모두 한동 졸업생으로 (01 산디 김혜은, 01산디 이숙현, 02 상담 최윤성, 03 상담 김미지, 05 국제공법 박은실) 모두 자녀가 1명 혹은 2명씩 있는 엄마들입니다. 저희 모임은 매주 1회씩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육아에 지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믿음의 진보를 위한 작성서 공유와 성경중심의 육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세상은 그분이 최초로 만드신 가정임을 깨달으며 건강한 엄마와 아내가 되기 위해 말씀으로 배우며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떨어져 초보 엄마로서 외롭게 지내던 각자에게 최고의 사람들이 될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한동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동맘 모두모두 정말 화이팅입니다!

한동툰 HANDONG TOON ~아너코드~



한일장학금, 우리가 몰랐던 소중한 이야기

익명 기부자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희망의 메세지

한동대학교의 장학금 중엔 '한일장학금'이 있다. 이 장학금의 이름만 봤을 땐 어떤 장학금인지 잘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생김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장학금 이름에서도 기부자 이름 혹은 특별한 의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학금엔 귀중한 사연이 감춰져 있다. 한일장학금의 의미와 그 사연들에 대해 알아보자.

가계곤란자와 새터민을 위한 한일장학금

한일장학금은 가계곤란자와 새터민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실질적 가장인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학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2012년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미화 2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2013년도 2학기부터 2014년도 1학기까지 78명의 학생(일반 가계곤란자 57명, 새터민 11명)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한일장학금은 앞으로도 매 학기 가계곤란자와 새터민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이루지 못한 베트남 선교의 꿈 '한일장학금'을 통해서

한편, 한일장학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연이 있었다. 기부자와 그의 남편은 오랫동안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신문에 실린 김영길 전 총장과 김영애 사모의 간증집회 광고를 보고 집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동대에서 있었던 일들과 한동대의 비전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그 후에도 간증테이프를 계속 들으며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기부자의 남편은 병환이 있었고 병환 치료를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소천하셨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은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반은 부인 몫으로 남겨두고 남은 반은 한동대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금으로 보내달라.”며 유언을 남겼고 기부자는 유언에 따라 자택규모를 줄여가며 한동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비록 기부자의 남편은 베트남 선교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현재 재산 기부로 만들어진 '한일장학금'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동대 학생들을 돕고 있다. 기부자는 특별한 예우를 원치 않으시고 무기명으로 장학금을 관리해 주길 요청하셨다. 한동대는 매 학기 선정되는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선별과정과 정보, 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감사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를 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에서 그들의 진심과 감사함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다. 한일장학금을 통해 생활고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될 학생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한, 그 학생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부자와 남편의 베트남 선교의 꿈은 바로 이곳 한동대를 통해 이뤄지지 않을까. 한일장학금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해본다.

장학금 수혜학생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저는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12학년 학생입니다. 귀한 도움을 주신 한일장학금 후원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황해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제 기억으로는 제가 6살 되던 해 여름부터 북한은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우리 삼형제를 굶게 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정말로 먹기 힘든 풀도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 나무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내어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씩 학교에 나가면 선생님조차도 기력이 없어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에 산에 가서 풀과 나무껍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제 기억에 남아서 맴돌 때마다 울고 싶습니다.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 했을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과 제 뒤에서 항상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힘들고 지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장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신뢰하며 어려운 학업이지만, 씩씩하게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학업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학업과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지식들을 바탕으로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이 지금 제가 살아갈 목적입니다. 오른 손에는 복음을 왼손에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지지치 않도록 격려 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사용 하지 않고 학업과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 주신 귀한 후원금으로 이번 학기를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한동천사 347명의 소중한 기부

학교의 장기적인 성장 위한 재학생들의 아름다운 참여

지난 6월, 한동대 재학생 347명이 학교를 위해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다. 재학생 대상 갈대상자 후원 캠페인인 '한동천사'(한동의 미래를 천원으로 사랑으로 시작합시다!)에 참여한 것이다. 한동천사는 한동대 대외협력처와 총학생회 한바탕, 자치회 이음지음, 글로벌리더십 학부가 함께 기획한 캠페인으로, 재학생들이 월 최소 천 원 이상의 금액을 학교에 후원함으로써 한동미래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후원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홍보게시물의 NFC QR코드를 태깅하거나, NFC 앱 또는 갈대상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 누구나 한동천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대는 1995년 개교 때부터 여러 교회와 4만여 명의 갈대상자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20년의 역사가 쌓이는 동안 한동을 향한 후원금은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이 되었다. 특히, 하버드 대학의 경우 동문 중 46%가, 예일 대학의 경우 50%가 학교 후원에 참여하고 있는 등 동문들이 모교에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번 한동천사 캠페인의 결과는, 비록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 하나하나의 참여가 이루어 낼 기적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캠페인 기획과정에 참여했던 김호경(경영경제 08) 학생은 “한동천사 캠페인은 재학생 대상 후원캠페인입니다. 개교 20주년 맞아 학교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재원마련이 절실한 때에 학교의 미래를 위해 재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졸업동문,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한동천사가 된 한가영(상담사회 12) 학생은 “한동에 다닌 지 벌써 3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동에는 새로운 기속사와 운동장이 생기는 등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한동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한동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천사를 통해 작게나마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라며 한동천사 캠페인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3주간 진행된 캠페인의 결과, 총 347명의 한동천사가 탄생했다. 이번 행사는 14학번 새내기부터 03학번 굵직한 선배까지 다양한 학번대가 참여해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앞으로 347명의 한동천사는 정기후원과 함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한동대가 앞으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학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다. 



후원안내

갈대상자(일반기부금)

하나님께서서는 작은 갈대상자를 통해 모세를 지키셨고, 훗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셨습니다. (출2:3) 작지만 큰 대학,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지도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를 향한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통해 한동의 갈대가 더욱 견고히 엮이기를 소망합니다.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 하나은행 910-910002-55405

보아스(일반기부금)

"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만을 가지고 낮선 곳을 향해 기꺼이 믿음의 걸음을 떼었던 듯. 하나님께서는 이 굳건한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한동대학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은 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걸음의 끝에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르는 한동 믿음의 행진에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 드립니다. (학)한동대학교 보아스 : 하나은행 910-910002-57705 (한구좌 100만원 이상)

팀워크(교육 선교 프로그램)

• TimWork(팀워크) :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디모데 사역'이라는 뜻. 한동에는 전 세계 60여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지식과 정직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그 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의 연합전선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 준 바울과 같이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에 파송될 이 시대의 청년 디모데들에게 바울이 되어주십시오. 한동대학교 팀워크 : 하나은행 518-910023-11205

건축기금

한동대학교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꿈을 품고 더불어 성장해가는 글로벌 타운(Global Town)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한동 글로벌 타운은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을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따뜻한 정성과 기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곳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한동대학교 건축기금 : 국민은행 640437-04-000024

한동 첫 열매(첫 월급)

첫 열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첫 월급 기부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첫 마음과 수고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사랑은 자신이 그려야 하듯 후배들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한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기부금을 통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기부자님께서 특정한 사용용도를 지정하시는 기부금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이 담긴 만큼 지정 기부금은 한동대 학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발전기금 : 하나은행 518-910007-34704

※ 갈대상자 및 보이스 기부금은 법인 및 법인의 대학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 기부금은 지정하신 목적에 따라 대학에 사용됩니다.

후원가입 정보변경 · 종료안내

1.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를 통한 신청
2. 직접 신청은 한동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과 세금

출연하신 기부금은 100%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sarang.handong.edu>)에서 발급 가능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전화: 054-260-1063~7
팩스: 054-260-1069
E-mail: sarang@handong.edu

한동대학교 미주 후원회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HIF)
24428 South Vermont Avenue, Harbor City, CA 90710 USA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E-mail: lahandong@gmail.com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HIFI)
3200 Westhurst Lane, Oakton, VA 22124-1748 U.S.A
Tel: 703-627-8050
E-mail: ksc@bskb.com



신규 기부자 명단

2014.1.1 ~ 2014.6.30 전체 848명

가요한	금미소	김상혁	김예찬	김종현	김혜진	박근주	박종석	서유경	신승우	오세훈
강남철	길민수	김세나	김예함	김종호	김호경	박금자	박종환	서유라	신예은	오승희
강내은	길예람	김선정	김은유	김주성	김희정	박도순	박지선	서재영	신원선	오연성
강민재	김가은	김성경	김요환	김준석	김효선	박동찬(61)	박지연	서준원	신윤수	오영순
강보원	김경완	김성규	김용섭	김준혁	김효은	박동찬(94)	박지원	서진	신은총	오원재
강수현	김경탁	김성범	김원득	김준호	김효진	박동현	박지윤	선요한	신진숙	오유진
강신익	김경태	김성수	김원란	김지민	김휘진	박맹재	박지은	선우태용	신총태	오인숙
강유리(92)	김경희	김성실	김유근	김지윤	김희경	박명희	박진경	성기욱	신하늘	오주영
강유리(94)	김광호	김성영	김유진	김지은	김희도	박민	박진필	성소영	신호철	오준열
강은정	김근영	김성은	김은미	김지찬	김희연	박민형	박진희	성우경	심명보	오지수
강지은	김금화	김성현	김은민	김지현(95)	김희재	박병찬	박찬민	성지은	심미래	오창식
강진영	김기쁨	김세현	김은비	김지현(96)	나유경	박사훈	박찬주	성현모	심정아	오한나
강태민	김기호	김세훈	김은빈	김진곤	나유진	박상열	박찬희	소경자	심충일	오현정
강하신	김기훈(88)	김소연	김은산	김진구	나윤서	박상욱	박철웅	손동주	심하영	옥상은
강현명	김기훈(94)	김소정	김은숙	김진욱	나주만	박상익	박학만	손명배	안세휘	옥주는
강현전	김나영	김송실	김은영	김진형	남승현	박상태	박학순	손상목	안소미	우숙
강형창	김나은	김수동	김은주	김찬	노민진	박석진	박현제	손수현	안운섭	우인숙
강호경	김다로	김수민	김은하	김찬동	노숙경	박성결	박홍재	손영선	안재은	우하은
강훈석	김다솜(89)	김수용	김은혜	김찬부	노옥경	박성동	반성식	손옥자	안재홍	우효섭
강희길	김다솜(91)	김수향	김은표	김채은	노현래	박세현	반효동	손은총	안정미	원보람
강희정	김다은	김수호	김의경	김채희	노희정	박승범	방선기	손정일	안하림	위성인
고범서	김덕남	김순겸	김인	김태돈	도경순	박신용	배성대	손필대	양기봉	유기영
고예리	김도영	김슬기	김인구	김태석	도영승	박영인	배태웅	송경학	양다솜	유기쁨
고윤홍	김도원	김승리	김인탁	김태완	도희철	박영재	백경현	송규수	양대웅	유동균
고준한	김도윤	김승호	김일환	김필기	류대영	박영진	백광제	송금선	양동영	유미경
공철현	김동락	김승환	김재광	김하영(92)	류여진	박예성	백봉현	송만기	양성열	유성희
곽규현	김동윤	김시은	김재동	김하영(94)	류영철	박용해	백선화	송상욱	양승아	유신자
곽성은	김동준	김아영	김재영	김하영(95)	류지열	박원곤	백세현	송섭리	양정진	유영연
곽하영	김두형	김영구	김재익	김한결	마민호	박유나	백승순	송영훈	양진혁	유요환
구근영	김면류	김영균	김재현	김한솔	모인옥	박윤성	백은성	송원실	양하린	유용준
구종배	김미경(62)	김영기	김재형	김해수	문영국	박은우	백이삭	송유진	양호정	유윤경
구희정	김미경(63)	김영길	김정빈	김현주	문옥순	박은정	백인재	송인호	양희복	유재일
권경민	김민경	김영만	김정수	김현민	문익주	박은총(93)	백종국	송재성	엄정근	유채현
권기매	김민주	김영서	김정숙	김현옥	문화준	박은총(94)	백종원	송지현	엄찬익	유청아
권병윤	김반석	김영숙	김정직	김현정(68)	민금채	박은택	변종창	송태성	엄하영	유령환
권세호	김배희	김영암	김정철	김현정(90)	민병수	박은혜	서경애	송하나	여현주	유필계
권예찬	김범준	김영은	김정태	김현정(95)	민병태	박인탁	서광하	송해상	오경준	윤국
권용찬	김범진	김영주(93)	김정현(95)	김현정(95)	민유빈	박인호	서명훈	송훈호	오경춘	윤미선
권유선	김범환	김영주(95)	김정현(95)	김현주	박경덕	박재욱	서성민	신덕현	오남희	윤미화
권유진	김병문	김영희(48)	김조은	김현진	박경민	박재환	서엘리	신동진	오동욱	윤석우
권정욱	김보람	김영희(61)	김종덕	김현희	박경열	박정수	서영숙	신봉현	오복연	윤성은
권지혜	김복순	김영희(67)	김종음	김혜린	박광명	박정호	서영은	신성만	오석일	윤애신
권혜정	김상하	김예빈	김종철	김혜원	박규림	박정환	서예진	신성용	오세정	윤용환

윤원재	이명신(59)	이신혜	이정순	이혜임	장소영	정수진	조봉호	채지예	추무궁
윤은주	이명신(66)	이애슬	이정훈	이혜주	장예나	정안영	조성주	천다솔	추보은
윤이나	이명심	이열진	이종성	이혜지	장예은	정연자	조영미	천재홍	추향기
윤이중	이명춘	이영은	이종수	이호	장예진	정영균	조영수	최광준	탁동주
윤재철	이미경(65)	이예은	이종숙	이홍규	장윤지	정영미	조영호	최모세	하민호
윤종복	이미경(69)	이예지	이종승	임계향	장재근	정영주(60)	조용	최미선	하용이
윤주영	이미현	이예진	이종안	임금희	장정희	정영주(61)	조은아	최미순	하유라
윤중천	이민하	이오성	이종원	임명안	장찬영	정영희	조은혜	최선미	하재인
윤창검	이병민	이오섭	이종은	임미경(57)	장현은	정은유	조인순	최선호	한가영
윤태희	이빈나	이요하	이주섭	임미경(58)	장형규	정유진	조정란	최성희	한덕근
윤한규	이시아	이용구	이지은	임병욱	전명희	정윤숙	조정우	최소망	한성빈
윤한울	이삭	이용림	이지현	임병훈	전민준	정은진	조춘신	최소연	한솔
윤형균	이상근	이용운	이지훈	임상래	전셋별	정인교	조태형	최소영	한애리순
이강미	이상기	이용호	이진규	임석중	전소현	정재호	조하은	최솔	한종호
이강숙	이상목	이용훈	이진실	임승숙	전순택	정재환	조형찬	최수경	한창훈
이강현	이상준	이원모	이창성	임연수	전영민	정종열	조희라	최속자	한태만
이경란	이석근	이원희	이창우	임영서	전영서	정주연	주디은	최애숙	함정인
이경우	이석명	이윤선	이창윤	임원규	전영혜	정주은(93)	주민호	최영철	함효주
이경자	이선민	이윤지	이재영	임익빈	전은주(79)	정주은(94)	주영기	최요섭	허경덕
이광용	이선옥	이윤표	이철승	임종선	전은주(81)	정지혜	주찬미	최요한	허남석
이광익	이성경	이은경	이철근	임종진	전지현	정진호	주찬영	최원식	허남성
이궁재	이상대	이은성	이충신	임지윤	전하은	정찬영	주태욱	최원준(84)	허영한
이균안	이성령	이은수	이충혁	임창은	전향록	정하늘	주환	최원준(95)	허정훈
이균진	이성범	이은주	이하늬	임철현	전현규	정하은	지영준	최유정	허희자
이근백	이성수	이은진	이하림	임하은	정경미	정학영	지현성	최은란	홍경덕
이금란	이성준	이은환	이하진	임혜영	정규원	정하나(65)	진숙자	최의섭	홍경희
이기욱	이성철	이용호	이한비	임현일	정다니엘성국	정하나(90)	진영상	최재선	홍성운
이나경	이성희	이인숙	이해규	임혜경	정다솔	정형섭	진영필	최재욱	홍윤정
이다윗	이수원	이일웅	이해중	임호일	정동선	정혜민	진예령	최정림	홍종욱
이다은(95)	이수진(63)	이장승	이항숙	임화영	정민규	정혜인	차다희	최정민	홍채훈
이다은(95)	이수진(91)	이재성	이현기	장마리	정민호	정호정	차예슬	최주안	황경선
이돈선	이숙경	이재호	이현재	장명욱	정보현	정희영	차오름	최지성	황어진
이동규	이순철	이재화	이현주	장미향	정석채	제예나	차원규	최창명	황예슬
이동혁	이승연	이재훈	이현진	장서희	정성민	조건희	차혜용	최청림	황우림
이로	이승재	이정백	이현희	장선아	정성엽	조다솔	채석현	최화용	황인하
이명건	이승진	이정섭	이혜인	장성현	정수중	조덕규	채수연	최희정	황찬우

ERIC GERARD BRUGGINK	Shaheryar Sher Gill	한양철강공업(주)	최미경교수님 수업프로젝트
JOHN ALLEN EIDSMOE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흥해경희요양병원	ALL치과
MATTHEW EMMET DANIELS	엠로해양기술(주)	(재)영자와병태 바보들의 행진	YJ컴퍼니
WENDY LYNN PATRICK	(주)참식품	(재)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지금 다림질 중이십니까?

세상이 너무 구겨졌어
많은 사람들이 불평만 합니다.

여기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다림질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구겨진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힘들다는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배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 스타리 하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당신을 기다립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정기후원 신청 054-260-1063 | 일시후원 참여 910-910002-55405 하나은행 (학)한동대학교 갈대상자
후원상담 문자 054-260-1063 (예)'김한동 후원상담' 발송 | 입학상담 054-260-1084~6



한동대학교
홍보영상 QR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동은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